ML 18년간 3154삼진 ‘마운드 지배자’

ML 명예의전당 스타탐구

3 페드로 마르티네스

메이저리그 선수는 두 가지 꿈을 지니고 있다. 현역 시절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차지하는 것과 은퇴 후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에 오르는 것이다. 메이저리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설들만이 오를 수 있는 명예의 전당. 올해는 랜디 존슨, 존 스몰츠, 페드로 마르티네스, 크레이그 비지오 등 4명의 스타플레이어들이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4명이 동시에 입회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스포츠동아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올해 명예의 전당 입성에 성공한 스타플레이어들의 발자취를 4회에 걸쳐 재조명한다.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마르티네스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뒤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산토도밍고(도미니카공화국) | AP뉴시스

1994년 몬트리올 이적하면서부터 진면목
직구·체인지업·커브·슬라이더 완벽 제구
219승100패·사이영상 3회 등 놀라운 업적
1999·2000년엔 이닝당출루허용 0.83뿐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있지만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자신의 우상이었던 친형 라몬 마르티네스가 이루지 못한 명예의 전당 입성에 성공했다. ‘외계인’이란 닉네임에 걸맞게 91.1%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입회 자격 첫해에 쿠퍼스타운으로 향했다. 18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거둔 성적은 219승100패(방어율 2.93)에 3154삼진. 사이영상 3차례(1997·1999·2000년), 월드시리즈 우승(2004년), 투수 트리플크라운(1999년), 올스타전 8회 출전, 올스타전 MVP(1999년), 방어율 1위 5차례, 아메리칸리그(이하 AL) 다승 1위(1999년), AL 삼진왕 3차례 등 놀라운 업적을 달성했다.

그의 공식 프로필을 보면 투수로는 비교적 단신인 180cm에 몸무게 77kg이 적혀 있다. 작고 호리호리한 체격이지만 상대 타자를 상대로 ‘싸움닭’으로 변하는 그는 직구,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4가지 구종을 모두 완벽하게 구사한 마운드의 지배자였다.

●페드로의 저주

3살 위의 친형 라몬에 이어 마르티네스는 1988년 LA 다저스와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 빅리그에 입성한 그는 주로 구원투수로 활약했다. 당시 토미 라소다 감독은 왜소한 체격의 마르티네스가 선발로 뛰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셋업맨으로 뛴 1993년에는 10승5패(방어율 2.61)를 기록하며 실력을 뽐냈지만 이듬해 몬트리올 엑스포스로 트레이드됐다. 절대 마르티네스를 트레이드하지 않겠다던 방침과는 달리 2루수 딜라이노 디실즈를 영입하기 위해 그를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한 것. 하지만 디실즈는 다저스로 이적한 후 세 시즌 동안 거둔 최고 타율이 0.256에 불과할 정도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반면 엑스포스에서 선발로 전향한 마르티네스는 4년 동안 55승33패를 기록하며 빅리그 최고의 투수로 발돋움했다. 특히 1997년에는 17승에 방어율 1.90의 놀라운 성적을 올려 생애 첫 사이영상을 거머쥐었다.

다저스는 1946년부터 1990년까지 내셔널리그 우승을 15차례나 차지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포스트시즌에서 단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다. 만약 마르티네스 형제가 원투펀치를 이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공교롭게도 마르티네스가 떠난 이후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있다.

●괴짜 기질

그 어느 누구보다 화려한 경력을 지녔지만 마르티네스의 이력에는 퍼펙트게임이나 노히트게임이 없다. 엑스포스로 이적한 첫해인 1994년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마르티네스는 7회 1사까지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레즈의 강타자 레지 샌더스를 고의로 맞혀 퍼펙트게임 기록을 스스로 날려 버렸다. 이듬해에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9회까지 27명의 타자를 상대하는 퍼펙트게임을 펼쳤다. 그러나 9회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돌입한 연장 10회에 안타를 허용해 위업을 아쉽게 놓쳤다.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이던 1999년 AL 디비전시리즈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1차전에서 마르티네스는 허리 부상을 당했다.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두 팀의 대결은 난타전으로 이어졌다. 최종 5차전에서도 4회까지 8-8로 동점을 이루자 마르티네스가 구원투수로 깜짝 등판했다. 정상 컨디션을 찾지 못한 마르티네스는 직구와 체인지업의 제구가 되지 않자 오로지 커브만을 던지면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인디언스 강타선을 틀어막아 팀의 12-8 승리를 이끌었다.

2003년 뉴욕 양키스와의 AL 챔피언십시리즈 3차전에 선발로 등판한 마르티네스는 부진한 경기를 펼쳤다. 2회부터 4회까지 1점씩을 허용한 그는 카림 가르시아의 어깨를 향해 빈볼을 던졌다. 이어진 이닝에서 양키스의 선발 로저 클레멘스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매니 라미레스를 맞히자 결국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졌다. 분을 참지 못한 양키스의 돈 지머 벤치 코치가 마르티네스를 향해 돌진했다. 당시 지머 코치가 72살의 고령이었지만 마르티네스는 인정사정 없이 그를 땅바닥으로 패대기를 쳐버렸다.

●제구가 뛰어난 삼진왕

홈구장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1999년 올스타전에서 마르티네스는 2이닝 동안 삼진을 5개나 잡아내며 MVP(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배리 라킨, 래리 워커, 새미 소사, 마크 맥과이어, 제프 배그웰 등 내셔널리그를 호령하던 쟁쟁한 타자들이 마르티네스에게 속절없이 삼진으로 물러났다.

그의 최고 전성기라 할 수 있는 1999년과 2000년의 성적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430이닝 동안 허용한 안타는 288개에 불과했다. 삼진을 597개나 잡는 동안 볼넷 허용은 69개에 그쳐 이닝당출루허용수 0.83을 기록했다. 41승(10패)을 수확했고 방어율 1.90을 찍은 마르티네스는 사이영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뉴욕 메츠의 에이스로 활약하던 2007년에는 탈삼진 3000개를 돌파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중남미 선수로는 최초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볼넷을 701개만 허용했다는 점이다. 삼진 3000개를 돌파하며 1000개 이하의 볼넷을 내준 것은 퍼거슨 젠킨스, 그렉 매덕스, 커트 실링에 이어 마르티네스가 역대 4번째였다. 손건영 스포츠동아 미국통신원

쿠바선수들, KBO리그 올까?

한국-쿠바 외교정상화 논의…교류 가능성
영입 제약 많지만 트라이아웃 등 방안 모색



쿠바산 외국인선수들이 활약하는 KBO 리그도 멀지 않았다?!

한국이 쿠바와 외교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프로야구에도 새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연내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작년 외교관계 정상화를 밝히고, 1월 중순 첫 무역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하면서 미수교국인 한국도 발걸음을 재촉했다. 쿠바는 북한과 우방이지만 한국과 경제적 실익을 져버리기도 힘들다. 야구를 통해 외화벌이에서 한몫할 수 있다.

●해외진출 활로 연 쿠바의 적극성

쿠바 출신 선수들의 국내무대 진출이 훨씬 쉬울 것으로 보인다. 몇몇 쿠바 선수들은 이미 한국에서 뛰고 있다. 두산의 외국인투수 마야(사진)가 재계약에 성공했고, 남자배구에서 레오(삼성화재)와 시몬(OK저축은행)이 활약하고 있다. 다만 마야와 레오는 망명을 통해 어렵사리 한국에 왔다. 시몬은 국가대표팀에서 주장을 맡을 정도로 헌신했고, 정부도 외국무대 활동을 허락한 사례다. 쿠바 선수들이 높은 대우를 받고 외국에서 활약하고 싶다면 망명을 택하지 않고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하지만 길은 조금씩 열리고 있다. 쿠바는 작년 9월부터 쿠바 체육부를 통해 자국 선수들의 해외진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제약도 있다. 국가가 나서서 선수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연봉의 20~30%를 국가에 내야 한다. 국가가 선수들의 에이전시인 셈이다. 작년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세페다(요미우리), 구리엘(요코하마)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쿠바와 오랜 수교국 중 하나다. 쿠바선수들이 일본에서 뛸 수 있었던 것도 양국 친선이 큰 영향을 발휘했다.

●KBO, 트라이아웃도 열려 있어

KBO도 프로에서 뛰는 외국인선수를 3명으로 늘리면서 쿠바선수 영입 가능성을 문의했다. 정금조 운영육성부장은 “2년 전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문의했고, 미수교국이라고 하더라도 구단의 보증과 취업비자를 발부받으면 합법적으로 뛸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선수의 영입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프로구단이 직접 쿠바야구협회와 쿠바 체육부를 거쳐 외국인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에이전트를 거쳐 구단과 구단이 외국인선수를 데려오는 경로와 크게 엇나가 있다. 기회비용도 크다. 검증을 마친 30대 중반의 A급 쿠바선수들은 몸값도 비싸다. 당장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기도 쉽지 않다. 정 부장은 “구단은 KBO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길 희망 한다”고 웃었다. 이어 “트라이아웃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외국인선수 영입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바의 어린 선수들이 한국무대를 두드릴 기회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

겨울 기모 반목 폴라 티셔츠~ 이거 하나면 올 겨울 끝!
후끈후끈 동계용 반목티셔츠 5종 55,000원
겨울철 일상생활은 물론 등산 · 낚시 · 골프 · 사이클 등 레저활동에 안성맞춤



보온성 · 방풍성 · 실용성 · 패션성을 겸비한 반목 폴라 기모 티셔츠는 겨울철 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다. 보온성이 탁월한 기모 안감 기술을 입힌 동계용 반목 폴라 티셔츠는 겨울철 일상생활이나 등산 · 낚시 · 골프 · 사이클 · 스포츠 레저 활동시 적합한 제품으로 입는 순간부터 난로를 품고 다니는 듯한 놀라운 차이를 온몸으로 느낄 것이다.
일상복 및 외출복으로 손색이 없으며 겨울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시켜 준다.

사이즈 95, 100, 105
색상 블루, 와인, 네이비, 카키, 블랙
동계용 반목티셔츠 5종 세트
₩208,000 → ₩55,0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쇼핑몰 : www.PLX24.com
입금계좌:우리 1005-802-359666 예금주:폴록스(이상재)

아침산행 후 바로 출근할 수 있는 일석이조 아이템!
동계용 크로스오버 바지 1+1 49,800원
기모 안감
기능성 · 스타일 · 활용성 모두 겸비한 올 겨울 베스트셀러 아이템!





아침산행 후 바로 출근할 수 있는 바지가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출퇴근시에는 정장스타일로, 아웃도어 활동시에도 안성맞춤인 동계용 크로스오브 바지는 기능성원단을 적용하여 땀은 흡수후 빠르게 건조시키고 쾌적함을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기모 안감과 스판 소재 사용으로 정장용 · 레저용 · 일상복으로 모두 입을 수 있게 디자인 되어 활용성이 뛰어나다. 허리부분에 주름밴딩 장착으로 숨 쉬는 바지 기능을 추가하여 30~70대 남성들에게 두루 인기를 끌고 있다. 신축성이 좋고 스타일도 좋아 지금부터 겨울철까지 딱 맞는 상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균과 땀 냄새까지 억제하며 산행 후 바로 출근할 수 있다.

사이즈 30, 32, 34, 36, 38
동계용 크로스오버 바지 1 + 1 세트
₩208,000 → ₩4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전국주문전화 : 1588-4930
쇼핑몰 : www.PLX24.com
입금계좌:우리 1005-802-359666
예금주:폴록스(이상재)